

포항시, '이차전지' 중심 9조원대 신사업 투자유치 성공

최근 8년간 100여개 기업서 투자
광역 교통망 등 신산업생태계 효과

포항시는 6일 이차전지 등 미래 신 성장산업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기업 투자 유치와 최적의 인프라 구축 등 빼어난 성과를 거둬가면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신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6기부터 8기 현재까지 최근 8년 여간 영일 만일반산단, 블루밸리국가산단, 융합 기술산업지구 등 지역 내 산업단지에 이차전지·바이오·수소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총 100여개 기업으로부터 9조 여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포항시가 철강 일변도에서 신산업으로 산업구조 다변화에 성공하고 있고, 혁신적인 지역 경제 발전 원동력과 차별화된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차전지 혁신 산업생태계 구축 및 인재양성 업무협약식.

포항은 최근 수년간 촉발지진과 코로나19, 경기침체 등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위기를 극복하며 더 큰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국내 최초 연구중심의대 포스텍, 세계 3번째 준공된 4세대 방사광가속기, 최고 수준 소재 분야 연구 기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포항만의 감점들의 활용한 최적화된 융합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선두에 선 '이차전지'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학·연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초격차 생태계를 구축하며 대한민국 이차전지 일등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포항은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이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특구에 지정됐고, 2021년 준공된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바이오·수소분야에서도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바이오오픈노베이션센터(BOIC)를 비롯해 '포항 3대 바이오 혁신 플랫폼'인 포항지식산업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가 차례로 문을 열면서 바이오기업과 벤처창업의 연구부터 기술 상용화까지 최적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수소 분야 역시 지난해 8월 국토부 수소 도시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데 이어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으로 친환경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에 따르면 "포항의 미래는 기업과 투자 유치에 달려 있는 만큼 미래 산업 생태계 확장과 함께 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를 확대해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상도 벤처기업 인증 획득 지원 나서

경상남도는 벤처기업 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벤처기업 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1년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도내 벤처기업의 신청 비율이 높았던 '보증대출유형'이 폐지되고,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는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되었다. 제도 개편으로 벤처기업이 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내 벤처기업 수가 감소하는 등의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벤처기업 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내 벤처기업 수를 늘리고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남=김영찬 기자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으로 진행 중인 '곡성군 안개마을 한달 살기' 체험 프로그램. /뉴스시스

'청년마을 조성사업' 공모

전남도, 30억 투입 10곳 추가 조성

전남도가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전남형 청년마을' 10곳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공모에 착수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난해부터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시작했다.

청년 중심의 사업 추진 자율권과 주도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0곳을 선정해 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을 바라는 청년단체 또는 기업은 오는 1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10곳에는 2년 동안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와 1대1 매칭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시·군 합동으로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사업 진행과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순천 2곳, 곡성·영광·완도 각 1곳 등 총 5곳을 선정했으며 현재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 중이다.

순천 장천동 '천천히마을'은 환경과 연계한 청년커뮤니티, 청년잡지 제작,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통해 일 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부산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약

한수원 해외 네트워크 활용 홍보

부산시는 6일 시청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과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인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직접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하였고, 이번 협약을 통하여 두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각종 네트워크와 채널을

활용,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 물, 식량, 기후 위기 등 세계 인류의 당면 문제에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함께, 새로운 기술로,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이라는 '인류공존프로젝트'에 상호공감하고, 향후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도 상호 협력한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알리기에 한수원의 국내 및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돼 대한민국 부산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

안동시, 농업용수 공급에 143억 투입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33개소 정비

안동시는 올해 농업인의 편리한 농업경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143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업용수 공급 확대에 나선다.

우선, 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46억6천만 원을 들여 용·배수로, 양수장, 암반관정, 저수지 등의 수리시설 33개소를 정비한다.

또한, 안동호와 인접하나 상류부에 위치해 농업용수 취수가 불가한 와룡산아리상사골 지구 일원에 추진 중인 안동 북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10억 원, 이 용수를 활용한 소규모용수개발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해 연장 16.8km의 관로를 설치, 66개소에 추가 급수를 실시한다.

또한, 예안면 도촌지구 다목적 농

촌용수개발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물리면적 35ha로 급수구역을 확장한다. 북전면 신평리 황정골 지구에도 5억 원을 투자해 양수장을 설치하고 10ha의 급수구역을 확장한다. 이외에도, 암반관정 개발 등 4개소의 농업용수개발사업에 4억 원, 쾌적한 농업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6개소 주민숙원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8천만 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기상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일직 운산2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국비 50%, 지방비 50%)은 2025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201억1천만 원 중 2023년 14억 원의 예산으로 보상협의 및 부대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안동(경북)=이상호 기자

창녕군 상부기관 평가대비 대응책 논의

창녕군은 6일 군정회의실에서 조현홍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중앙 및 경남도 등 상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평가대비 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 한해 달성목표 및 실시 예정인 79개의 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기준과 항목을 분석해 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액' 1억 돌파

전남 장성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기부액이 두 달 만에 1억원을 넘어섰다.

장성군은 지난달 28일 기준 총 348명이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기부금액이 1억원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금액별로는 기부자의 80%인 287명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을 기부했다.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도 23명에 달했다. 답례품은 장성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사과, 대봉꽃감 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이 많은 선택을 받았다.

/장성(전남)=양수영 기자

영양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행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취업 취약계층 생계안정과 실업난 해소를 위해 3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2023년 상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3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에 8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22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군청을 포함한 7개 읍·면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사회복지향상사업, 농어촌일손돕기사업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게 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관광자원 활용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지원사업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북도 "봄맞이 산수유꽃 보러 오세요"

의성군, 25~26일 축제 개최

경북도는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국적인 마케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군 곳곳에서 상춘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다채로운 봄 축제를 개최한다.

봄 축제의 시작은 오는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의성군에서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트리며 만개하는 '산

수유마을꽃맞이축제'로 봄을 알린다.

축제기간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에는 조선시대부터 심어져 300년의 수령을 뽐내는 산수유나무 3만 그루가 장관을 연출하고, 산수유 꽃길 걷기, 버스킹 공연 등이 특산물 먹거리장터와 함께 진행돼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이상호 기자